콩·옥수수 식품 82% GMO 사용 안해

서울환경연합은 시중에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 가공식품 1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3개 제품(82%)이 유전자조작생물체(GMO)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월14일 밝혔다.

서울환경연합이 최근 GMO 원료가 포함됐는지를 제조기업에 문의해 답변을 받은 결과로 조사대상 제품군 중 간장과 식용유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.

간장은 12개 제품 중 8개가, 식용류는 4개 제품 모두 GMO 원료가 섞여있거나 포함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.

서울환경연합은 "소비자들이 GMO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으며, 소비자들의 예상과 달리 다수의 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"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15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